# 보성군, 5월 3일부터 5일까지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개최

## 연분홍 꽃바다로 물든 일림산, 자연이 선사하는 봄의 절경 속으로 초대합니다

보성군은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최대 철쭉 군락지로 손꼽히는 웅치면 일림산 일원에서 '제21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발 667m의 일림산은 호남정맥의 끝자락 남해를 품은 명산으로, 산 전체를 뒤덮은 150ha 규모의 연분홍 철쭉이 장관을 이루는 봄철 대표 관광지다.

특히,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철쭉 능선은 '한 폭의 그림 같다'라는 찬사를 받으며, 매년 수많은 등산객과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이번 행사는 보성의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축제로 기획됐다. △일림산 정상에서 보성군의 번영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례, △일림산의 사계와 생태를 담은 산림 문화 사진 전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목공 놀이, △편백나무 자르기 체험, △차나무 화분 만들기, △보성의 신선한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로컬푸드 판매 코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군 관계자는 "기후가 따뜻하고 생육 조건이 좋아 올해 철쭉은 예년보다 색감이 더욱 선명하고 개화 시기도 적절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철쭉 명소인 일림산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21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와 함께 5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보성에서 피어나는 천년 차(茶)의 약속'을 주제로 '2025년 통합형 보성다향대축제'를 한국차문화공원과 보성군 일원에서 개최한다.

군은 5월 황금연휴를 보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를 비롯해 △보성군민의 날, △데일리 콘서트,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보성마라톤대회, △어린이날 행사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보성의 진면목을 오감으로 느끼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보성/김운기 기자

## 함평군 나비대축제 빈틈없는 안전 관리 총력

### 안전관리위원회… 경찰서·소방서 등 관계 기관 협력 결의

전남 함평군이 4월 25일 개막하는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를 앞두고 안전관리계획을 점검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평군은 11일 "축제의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제2회 함평군 안전관리위원회'가 지난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상익 함평군수가 주재했으며 함평경찰서, 함평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등 유관 기관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평축제관광재단의 축제 세부 계획 보고와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을 세밀히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위원들은 ▲행사 안전관리 조직 구성 ▲다중 운집 시 대응 방안 ▲비상 상황 대처 계획 등 축제 전반에 걸친 항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며 빈틈없는 안전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함평군은 축제 개막 전 관계 기관과의 합동 현장 점검도 함께 추진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축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모든 군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완벽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는 '나비. 황금박쥐를 만나다'를 주제로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함평/전광춘 기자

## 강진군, 사계절 꽃피는 '세계모란공원' 새단장

### 모란꽃 사이 수선화가 웃는다 사진 찍기 좋은 힐링 명소 등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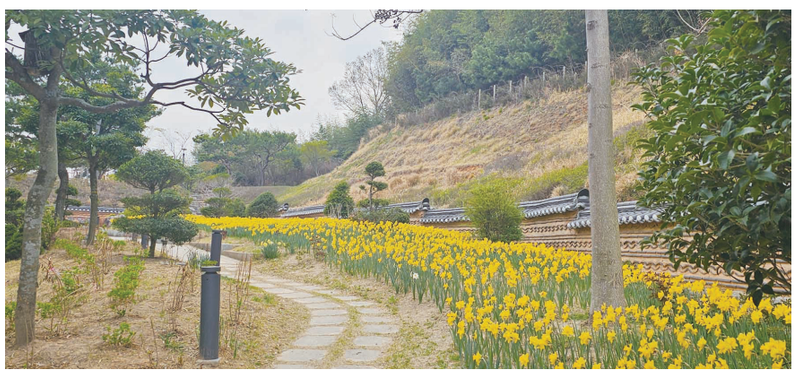
강진군의 대표 관광명소인 세계모란공원이 최근 본격적인 봄맞이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이번 정비사업은 공원 내 산책로 데크를 보수하고 모란, 작약, 서부해당화, 수선화 등 총 6종의 수목 800여본이 공원 산책로 및 공원 전역에 고루 심어져 봄꽃 향기 가득한 산책길로 새롭게 단장됐다.

공원이 위치한 영랑생가 뒤편 보은산 자락은 시인 김영랑의 대표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의 정서를 담은 문학공간으로, 해마다 5월이면 모란꽃이 장관을 이루는 지역 대표 관광지다.

수선화는 3~4월, 모란과 작약은 5월, 서부해당화는 4~6월에 걸쳐 차례로 꽃을 피우며, 공원을 찾는 이들에게 계절따라 피어나는 꽃의 릴레이를 선사한다.

특히, 붉은 모란과 노란 수선화, 분홍빛 서부해당화가 어우러진 경관은 공원의 사진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강진군은 이와 함께 지속적인 풀베기와 전반적인 공원 환경 개선도 병행하고 있어 방문객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진근 산림과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세계모란공원이 사계절 내내 머물고 싶은 공원으로 거듭났다"며 "앞으로도 김영랑 시인의 문학과 다양한 모란과 꽃들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생태공간으로서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 순천만국가정원에 퐁당, 꽃이 피는 자연 속에서 힐링

### 봄꽃 장관 펼쳐져… 자연과 감성 어우러진 힐링 명소로 주목

전국 최대 정원 관광지인 순천만국가정원이 봄을 맞아 온 정원이 화사한 봄꽃으로 물들어 가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물결치듯 흐르는 튤립으로 물든 노을정원, 바람개비처럼 펼쳐진 튤립이 인상적인 네덜란드 정원, 크레파스로 그린 듯한 색감이 가득한 스페이스허브까지 각양각색의 포토스팟이 관광객을 맞이하며 아름다운 봄날의 기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정원을 하나의 거대한 풍경화처럼 감상하며 걷다 보면, 정원 곳곳에 자연과 이야기가 어우러진 이색 공간들도 눈길을 끈다.

호수정원 앞에 설치된 풍금은 디지털 시대 속 느린 감성을 전하며 자연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내고, 비오톱 청보리밭 한가운데 놓인 흑두루미 조형물은 자연과 생명의 의미를 담아내며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포토존으로 주목받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단순한 꽃구경을 넘어,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리듬 속에서 삶의 여유와 쉼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순천만국가정원은 자연의 흐름 속에서 삶의 쉼표가 되는 공간"이라며, "꽃으로 피어난 정원의 이야기를 따라 걸으며 위로와 설렘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 기부자와 군민 모두 공감하는 참신한 기금사업 발굴… 내달 9일까지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기부자와 군민 누구에게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참신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담양군에 모인 소중한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공모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의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 4개다.

참여 대상, 공모 내용,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정철원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통해 지역발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군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고향사랑기부금의 가치 있는 사용을 위해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올해 '거동불편 어르신 병원동행 및 퇴원환자 통합 돌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향촌공동급식센터 운영', '청소년 독서 동아리 지원사업', '상가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담양/이종옥 기자

## 완도군, 35억 투입 인재 육성 교육·장학 사업 추진

### 초중고 입학 축하금, 인재 육성 장학금, 교육 환경 개선 등

완도군이 올해 교육 지원 사업에 14억 원, 장학 사업에 21억 원 총 35억 원을 투입해 인재 육성과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

교육은 ▲초중고 입학 축하금 ▲완도군 진로체험센터 운영비 지원 ▲학교 교육 시설 투자 ▲원어민 보조 교사 지원 등 9개 세부 사업이 해당된다.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학은 ▲인재 육성 장학금 ▲미래 교육 ▲교육 환경 개선 ▲보편적 교육 사업 등 4개 분야, 1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 중·고교 학생들이 만 원에 서울 강남구 인터넷 강의인 '강남인강'을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해 도서 지역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군은 교육 인구 감소와 입시 제도 변화 속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장학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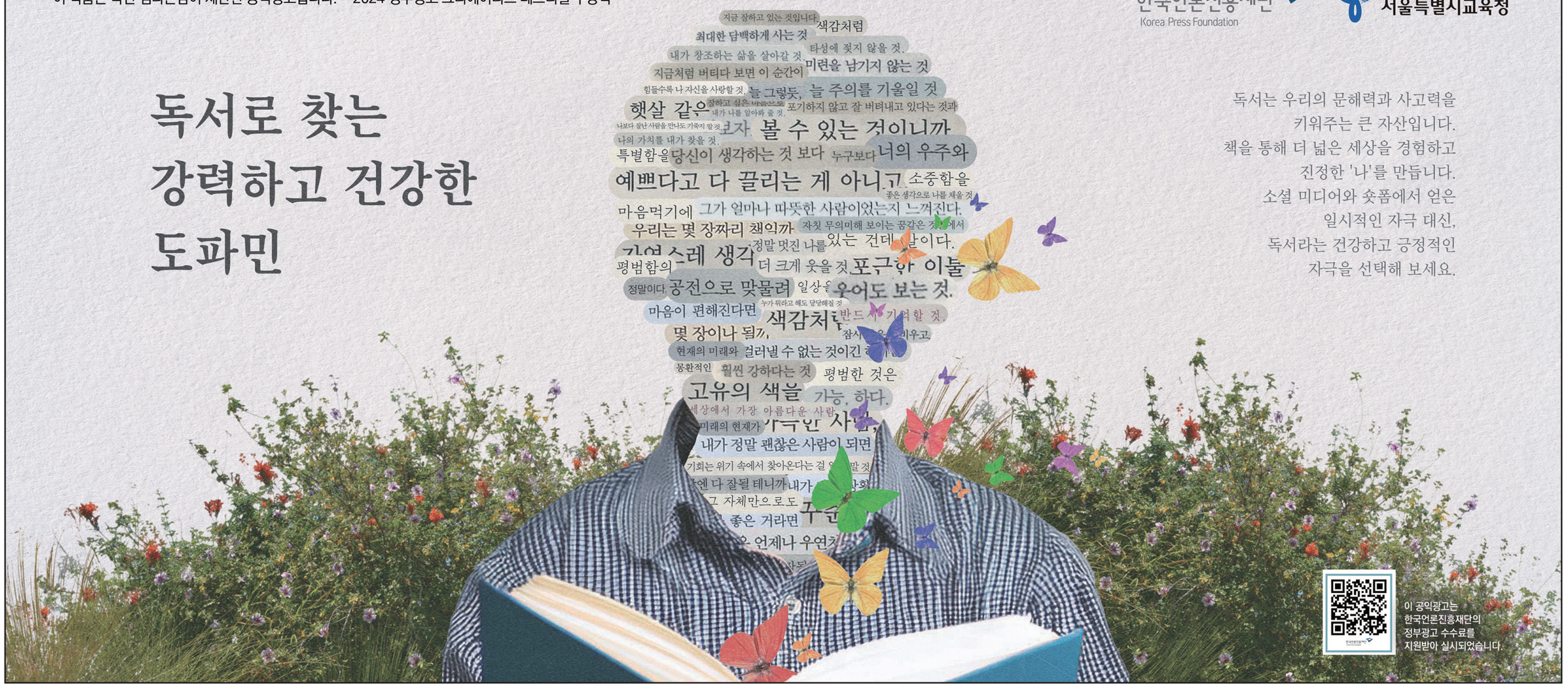
신우철 군수(장보고장학회 이사장)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므로 교육, 장학 사업 발굴 및 운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